

SPECIAL ISSU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6):335-346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²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³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⁴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⁵
연세한국병원 정신건강의학과⁶

정한용¹ · 이강준² · 이해국³ · 백종우⁴ · 나경세⁵ · 최원석⁶

A Consideration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Han-Yong Jung, MD, PhD¹, Kang Joon Lee, MD, PhD², Hae Kook Lee, MD, PhD³,
Jong Woo Paik, MD, PhD⁴, Kyoung-Sae Na, MD⁵, and Won-Seok Choi, MD⁶

¹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Uijeongbu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⁵Department of Psychiatry,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Incheon, Korea

⁶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Korea Hospital, Hwaseong, Korea

Received August 26, 2014
Revised September 17, 2014
Accepted September 30, 2014

Address for correspondence

Han-Yong Jung,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170 Jomaru-ro, Wonmi-gu,
Bucheon 420-767, Korea
Tel +82-32-621-5232
Fax +82-32-621-5018
E-mail hanyjung@schmc.ac.kr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should protect members' rights, and also plan long-term policy for public activity in a society. In these efforts, creation of mission, vision, and core values is of utmost importance. Second,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is important for sharing and discussing the mission, vision, and core values of the KNPA. Third, public relations play a key role in advertising the policy and providing information. Based on the above major issues and results of representatives questionnaire, the authors suggest that careful planning of long-term policy and roles of the KNPA is neede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6):335-346

KEY WORDS Mental health · Health policy · Psychiatry ·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서 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45년 9월 7일 조선정신신경의학회로 창립되어 1955년 6월 4일 학회 명칭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 개칭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¹⁾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하며,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학술, 연구, 교육, 그리고 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새로운 학회의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의약분업 사태, 의사 숫자의 증가, 자살 및 재난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역할과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료 및 사회환경의 변화와 회원들의 요구는 학회 내 기구이면서도 동시에 학회 임원진들과 다른 선출 시기와 역할을 지니고 있는 정책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²⁾

이렇게 시대적 필요와 회원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설립된 정책연구소는 학회의 당면한 현안 및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까지 폭넓게 아울러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현시점은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만큼이나 정신의학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중독문제와 컴퓨터 게임, 노인복지 현안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보험수가, 타과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진료, 우울증 선별 검진 문제 등 타과의와의 협의 및 현안 해결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현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부실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함과 동시에, 응급정신의학과 및 재난심리대응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헌고찰과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1) 학회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전략, 2) 학회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편, 3) 학회의 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세 영역을 중심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그 초안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 현직 이사장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수정하여 최종적인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1) 학회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전략, 2) 학회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편, 3) 학회의 홍보활동 강화, 4) 학회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이렇게 네 영역의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본 설문지는 전체 대의원들 127명에게 설문 문항을 발송하여 총 85명으로부터 무기명으로 응답을 받았다. 본 설문조사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관련 국내의 학술단체와 학회의 사례들에 대한 문헌을 찾아 고찰하고 정리하여 2014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본고에서는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의 범주를 1) 학회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전략, 2) 학회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편, 3) 학회의 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3개의 군으로 간소화하고,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학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논의에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결 과

학회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전략

국내외 사례 비교

한 조직의 중장기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프레임은 대개 개별적인 미션 및 그에 대한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미션은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경우 국민과 회원, 정부, 그리고 학회가 기반하고 있는 정신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한다. 국내외 여러 학회들에서는 각 학회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예를 들면, 미션은 ‘인재양성, 학술연구,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에게는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제공한다’이며, 비전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국민과 교감하며 가슴으로 펼치는 응급의료’이고, 핵심가치는 ‘언제나 깨어 있는 학회/ 회원과 교감하는 학회/ 미래를 준비하는 학회/ 국민과 교감하는 학회/ 꾸준히 공부하는 학회/ 이끌며 함께 가는 학회’로 정의된다.³⁾ 외국의 정신건강의학 관련 학회의 경우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를 예로 들면, 비전은 ‘양질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치료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회’와 ‘현대정신의학의 목소리와 양심으로서의 정신의학회’로 규정되어 있다. 미션은 ‘물질남용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최상의 케어를 추구한다’, ‘정신과적 교육 및 연구를 추구한다’, ‘정신의학의 전문화를 선도하고 표방한다’, ‘회원들의 전문적인 니즈를 위한다’ 등이 있다.⁴⁾ 대한응급의학회 및 APA 모두 각각의 학회가 담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비전과 미션, 가치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제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인 만큼, 실제적인 비전과 미션은 전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따라 비전과 미션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이를 지향함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학회 정책 및 사업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핵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보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정회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전문성에 근거하여 지역에 현

신하는 정신건강 리더이자 정신건강의학의 실천자로서의 전문가집단'이라고 정의해볼 때,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최적의 정신건강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이러한 비전 아래 앞서 언급한 국민, 회원, 정부,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미션을 고안해볼 수 있다. 먼저 국민과 관련하여 '양질의 정신건강증진/진단/치료 제공'을 미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 회원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권익과 정체성을 옹호'할 수 있고 정부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정책제안과 반영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관련하여 '정신의학 지식 및 기술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핵심가치는 전문성, 파트너십, 옹호, 실행, 소통, 그리고 전문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향후 회원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서 더 잘 다듬어지고 대다수 회원들의 정서와 역할을 반영할 수 있는 비전, 미션, 핵심가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해볼 수 있다.⁵⁾ 2014년도에는 미래준비를 위한 비전과 미션 등을 새로이 정의하고, 5년 뒤인 2019년에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구축한다.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국가정책의 공식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책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을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핵심적인 개념과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감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대의원들 중 90% 이상이 학회에서 조직의 미션, 비전,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운

영과 사업수행에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렇다' 62.4%, '약간 그렇다' 29.4%). 또한 조직의 미션, 비전, 발전전략 등을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정관에 삽입하고 대의원, 대국민 메시지 등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0%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학회 미션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다양한 응답들이 있었다. 중요한 항목 위주로 3개를 선택하는 설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63.5%)이었고, 그 뒤를 이어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52.9%), '합리적 정책개발과 제안'(44.7%), '정신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43.5%), '환자와 국민의 권리 옹호(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31.8%) 등이 있었다. '회원들의 정체성 옹호'(11.8%), '환자와 국민들의 권리 옹호(알권리)'(5.9%) 등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현재 중요하고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 3개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역시 다양한 범위의 응답들이 제시되었다. '미션, 비전, 핵심가치의 선정'(61.2%)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적 대국민 홍보 교육 활동 강화'(52.9%), '회원총조사를 통한 정확한 요구파악과 정책시행'(49.4%) 등이 뒤를 이었다. '출판 등 활발한 수익사업'(3.5%)이 두드러지게 응답도가 낮은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비교적 비중 있는 사항들로 선택되었다.

학회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편

조직내 소통

소통은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그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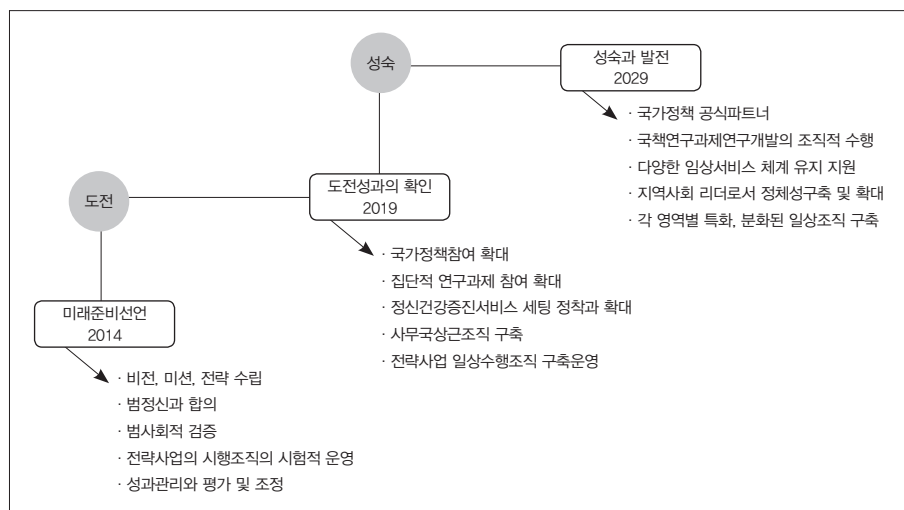


Fig. 1. Proposed process for medium-and-long-term plan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Permitted and Adapted from Lee et a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 53:75-86.⁵⁾

이 추동력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제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체계와 틀이다. 어떤 의견이 조직의 구성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을 이끄는 집행부와 전체 조직 구성원들에게 회람되고 공유되어야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

일반적인 회사와 같은 경우 구성원들이 대개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공간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수시로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그에 따른 의사소통을 한다. 조직 내 의사소통 이론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조직들 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⁶⁾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는 구성원들 간에 기본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만큼 구속력이 약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구속력이 느슨한 조직은 본질적으로 전체 회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만약 다수 회원들이 학회의 사업 및 역할 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집행부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학회는 전적으로 소수 집행부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회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학회에 점차 무관심해지고, 그럴수록 더욱 학회는 소수의 집행부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직에서 회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결집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조직이 운영되게 된다.

따라서, 각 전문가들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는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틀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고, 재난 및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전체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직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편에 대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75% 이상의 대의원들이 학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회에 의견이나 민원을 전달하고자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이사(장) 및 임원진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47.6%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대의원 접촉’(42.7%),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19.5%)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회에 의견이나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그럴 의향이 없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어차피 전달해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으며, ‘마땅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음’의 경우가 31.7%, ‘별로 관심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0%였다. 학회가 대의원 본인을 포함한 전문의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대의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의원들은 31.7%로 ‘잘 반영한다’(17.1%)고 응답한 대의원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절반(50.0%)에 해당하는 숫자의 회원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요한 항목들을 3개 응답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86.6%의 회원들이 ‘당면현안(보험수가, 원격진료 등)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시’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원의, 봉직의, 교직의 등 여러 직능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 도출’(64.6%), ‘학회의 비전 및 방향성 설정’(53.7%) 등이 뒤를 이었다.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 활동’(9.8%),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심사 및 평가지표’(11.0%), ‘전공의 수련과정 및 TO심사’(13.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주요사업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복수응답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들의 참여저조 및 무관심’이 76.6%로 가장 높았고, ‘각 직능 및 병원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의견조정 어려움’(52.4%), ‘관심과 의지가 있는 회원들이 담당 업무에 실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40.2%), ‘담당 위원회 및 담당자들의 폐쇄적인 의사결정’(37.8%) 등이 뒤를 이었다. 학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 3개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각 직능(개원의, 봉직의, 교직의)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 논의 기구 설립 및 활성화’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학회 홈페이지를 회원들의 질문 및 의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과 논의의 공간으로 적극 개편 및 활성화’(53.7%), ‘주요 현안에 대한 전체회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도입’(47.6%) 등이 있었다. ‘해당분야 전문가 영입 및 자문의뢰’(9.8%), ‘주요 현안에 대해 이사회를 공개적으로 진행’(20.7%),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 고양’(25.6%)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 결과, 대의원들이 현재의 학회가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고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회 구조 개편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체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

순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회원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회원들의 당면현안(보험수가, 원격진료 등)과 정책 개발 및 제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현안들 그 자체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 직능들의 전체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향후 학회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학회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

홍보의 중요성

학회의 대내외적인 활동 내역은 안팎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전체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널리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외부적 우리 학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알려야 할 때 역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신뢰성 있는 매체에 실리고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학회의 홍보 활동이다. 학회 홍보 활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학회가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적 단체로서의 해당 학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외적인 홍보 활동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 해소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편견과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뉴스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머리 기사를 사용하기도 하고,⁷⁾ 드라마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정신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호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기도 한다.⁸⁾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당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평상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언론, 방송 대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학회의 활동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목적의 대내적인 홍보 활동을 고려해본다면 우선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회원 홍보수단의 고려와 기존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내적인 홍보 활동은 그 수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홍보하고 공감하고 의견을 모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

분이다.

해외사례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우선, APA에서는 백악관에서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2013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행사를 주관했다.⁹⁾ 또한 원활한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해 전화망과 음성메시지 전달 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한다. 정신건강재단에서는 학회의 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typical or troubled?'TM라는 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500명의 교사들을 훈련시켜 13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였다.¹⁰⁾ 우리나라 학회의 홍보위원회에 해당되는 소통 및 공보국(office of communication and public affair)에서는 주로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전달과 교육 프로그램 시행, 언론에 제공하는 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며, 국가적 재난이 발생시 트위터 등으로 대응지침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¹¹⁾

홍보현황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의 홍보활동은 주로 홍보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에 MBC와 함께 〈날리자 스트레스 정신건강박람회〉를 개최하여 매년 정신건강박람회를 시행하면서 대규모 대국민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질환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상세히 모니터링하며 임원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기사들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와의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 외 주요 홍보사업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를 푸싱 메일로 발송하고, 뉴스레터를 매월 발간하며, 대국민 안내책을 제작 및 발간, 네이버 정신건강 특집 콘텐츠 제작, 대국민 강의 슬라이드 제작 및 배포,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정신건강특집 기사 공동기획 및 콘텐츠 제공, 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설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향후 홍보전략

앞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활동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낙인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데에는 교육, 대인접촉, 그리고 항의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교육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이나 미신 대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대중매체, 서적, 영화, 비디오, 웹페이지 등을 통한 접근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인접촉으로는 낙인을 가진 사람이 정신질환자와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낙인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저항은, 낙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부조리에 대한 충고, 훈계, 항의 등을 하는 방식의 접근이다. Corrigan 등¹²⁾의 연구에서는 항의하는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의는 그 자체로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낙인 형성을 조장하는 대중매체를 견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위의 연구에서는 성인에게는 교육보다는 대인접촉이 효과적이며, 반대로 청소년에게는 대인접촉보다는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대의원 설문조사

내부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한 시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조직 특성상, 홈페이지를 통한 내부 홍보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학회 홍보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홈페이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시행하였다.

부록에 나와 있는 학회 홍보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학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정보들 두 가지로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정신보건법 보전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부처정책 및 진료심의기준 변화’(91.5%)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대처’(76.8%)를 꼽았다는 점이다. 같은 문항에 보기로 들어가 있는 ‘학회 및 연구학회 행사 안내’와 ‘최신정신의학 지식’ 등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0.7%와 11.0%로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회원들이 학회로부터 어떤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자 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최신의학지식은 대부분 인터넷 학술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학회 및 연구학회 행사 등도 기존의 체계를 통해서도 충분한 전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 및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해 발빠르게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홈페이지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전체 대의원들의 44.4%가

‘한 달 이상 간격으로 홈페이지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홈페이지의 사용 빈도수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대의원도 7.4%에 이르렀으며,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공지사항 확인, 행사/일정 확인 등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현재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61.7%에 해당되는 대의원들이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홈페이지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는 압도적으로 ‘전문의 회원들을 위한 콘텐츠 부족’을 꼽았는데, 홈페이지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능으로 응답 순위가 높은 3개가 모두 ‘전문의 회원들의 소통과 교류(게시판, 커뮤니티 기능 등)’, ‘전문의 회원들을 위한 신속한 정보 및 자료(공지사항, 학회 일정, 진료지침 등)’, ‘전문의 회원들을 위한 웹기반 교육과정(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CME 과정 등)’이 각각 높은 응답을 얻는 것과 상응하였다. 마지막으로, 63%에 이르는 대의원들이 모바일 버전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상의 홈페이지 설문 결과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내외적 홍보 전략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의원들 응답 중 현재의 학회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은 현재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반인 대상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니즈를 종합하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회원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회원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학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회원들 간의 폭넓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향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정신건강 · 건강정책 · 정신의학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으며, 논문 내용의 일부는 2014년 4월 10일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정책연구소 공청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4 annual report. Seou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2014.
- 2) Lee HK, Chae JH.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5;44:389-396.
- 3)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homepage on the Internet]. About KSEM. 2014 [updated 2014; cited 2014 Jun 26]. Available from: http://www.emergency.or.kr/html/sub01_08_01.asp.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homepage on the Internet]. Mission, vision, and values [cited 2014 Jun 26]. Available from: <http://www.psychiatry.org/about-apa--psychiatry/mission-vision-and-values>.
- 5) Lee HK, Choi WS, Paik JW, Lee KJ, Na KS, Jung HY. The future report for the innovative advance of Korean psychiatry in 2030.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75-86.
- 6) Harolds JA. Communicating in organizations, part I: general principles of high-stakes discussions. Clin Nucl Med 2012;37:274-276.
- 7) Jung YW. An upsurge in hate crime among the mentally ill [cited 2014 Jun 21]. Available from: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1949&ref=A.
- 8) Son RH. Amendment for prohibiting involuntary admission to the closed ward [cited 2014 Jun 21]. Available from: <http://www.newsmpp.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90>.
- 9)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Background on the nation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2013.
- 10) American Psychiatric Foundation [homepage on the Internet]. About typical or troubled?TM [cited 2014 Jun 21]. Available from: <http://www.americanpsychiatricfoundation.org/what-we-do/public-education/typical-or-troubled/about-typical-or-troubled>.
- 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homepage on the Internet].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public affairs (OCPA) [updated 2010; cited 2014 Jun 21]. Available from: http://apps.psychiatry.org/AnnualReport2010/advocacy_ocpa.html.
- 12) Corrigan PW, Morris SB, Michaels PJ, Rafacz JD, Rüsch N. Challenging the public stigma of mental illness: a meta-analysis of outcome studies. Psychiatr Serv 2012;63:963-973.

■ 부 록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 대의원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

문 항	응답률(%)	응답수
1. 조직경영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조직의 미션, 비전 등을 정의하곤 합니다. 국내 학회에서 이런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 등을 정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럴 것이다	29.4	25
약간 그럴 것이다	22.4	19
보통	9.4	8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32.9	28
거의 그렇지 않을 것이다	5.9	5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에서 조직의 미션, 비전,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운영과 사업수행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62.4	53
약간 그렇다	29.4	25
보통	3.5	3
별로 그렇지 않다	3.5	3
거의 그렇지 않다	1.2	1
3.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직의 미션, 비전 등을 정하여 활용한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회에서 정하여 선포함	4.9	4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선포함	9.9	8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선포하고 정관에 삽입함	21.0	17
대의원회에서 정해 정관에 삽입하고 대의원, 대국민 메시지로 활용함	58.0	47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6.2	5
4. 미션은 일반적으로 한 조직의 존재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학회 미션의 예입니다. 다음 항목들 중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시시오.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63.5	54
지역과 사회에 헌신	24.7	21
합리적 정책개발과 제안	44.7	38
전문성의 함양	21.2	18
정신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	43.5	37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	52.9	45
회원들의 정체성 옹호	11.8	10
환자와 국민의 권리 옹호(알 권리)	5.9	5
환자와 국민의 권리 옹호(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31.8	27

문 항	응답률(%)	응답수
5. 국내외 학회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아래의 예시 중 우리 학회가 현재 중요하고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시요.		
미션, 비전, 핵심가치의 제정	61.2	52
상시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위원회 설치와 지속적 활동	34.1	29
출판 등 활발한 수익사업	3.5	3
전문성 있는 상근 사무국 설치	35.3	30
회원총조사를 통한 정확한 요구파악과 정책시행	49.4	42
Ethical & Positon statement(사회윤리적 이슈가 되는 임상상황에 대한 공식입장의 제정과 교육)	37.6	32
CME 활성화(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평생지속교육프로그램)	25.9	22
일상적 대국민 홍보 교육 활동 강화	52.9	45
6. 선생님께서는 학회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상당히 알고 있음	19.5	16
어느 정도 알고 있음	35.4	29
보통	20.7	17
잘 모름	23.2	19
거의 모름	1.2	1
7. 선생님께서는 학회에 의견이나 민원을 전달하고자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19.5	16
대의원 접촉	42.7	35
이사(장) 및 임원진 접촉	47.6	39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7.1	14
8. 선생님께서 학회에 의견이나 민원을 전달하지 않으셨거나, 앞으로 그럴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로 관심 없음	11.0	9
전달해도 어차피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음	46.3	38
마땅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음	31.7	26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1.0	9
9. 전반적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는 학회가 선생님을 포함한 전문의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영한다	0.0	0
잘 반영하는 편이다	17.1	14
보통이다	50.0	41
반영하지 않는다	26.8	22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4.9	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	1

문 항	응답률(%)	응답수
10. 선생님께서는 학회에서 다음의 주요사업을 논의 및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시시오.		
학회의 비전 및 방향성 설정	53.7	44
당면현안(보험수가, 원격진료 등)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시	86.6	71
개원의, 봉직의, 교직의 등 여러 직능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 도출	64.6	53
대국민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	35.4	29
CME 등 양질의 진료를 위한 보수교육 및 의료기술 개발	25.6	21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 활동	9.8	8
전공의 수련과정 및 TO 심사	13.4	11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심사 및 평가지표	11.0	9
11. 만약 주요사업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담당 위원회 및 담당자들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37.8	31
전체회원들의 참여 저조 및 무관심	76.8	63
각 직능 및 병원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의견조정 어려움	52.4	43
관심과 의지가 있는 회원들이 담당 업무에 실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40.2	33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	1
12. 학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다음 중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시시오.		
각 지역 회원들의 대표로서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45.1	37
주요 현안에 대해 이사회를 공개적으로 진행	20.7	17
주요 현안에 대해 학회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및 결과 반영	32.9	27
주요 현안에 대한 전체회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도입	47.6	39
학회 홈페이지를 회원들의 질문 및 의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과 논의 공간으로 적극 개편 및 활성화	53.7	44
각 직능(개원의, 봉직의, 교직의 등)대표가 참여하는 통합 논의 기구 설립 및 활성화	62.2	51
해당분야 전문가 영입 및 자문의뢰	9.8	8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 고양	25.6	2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4	2
13. 다음은 현재 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보이벤트 및 기획입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을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시시오.		
정신건강박람회	72.0	59
정신건강연극	6.1	5
정신건강음악회	19.5	16
정신건강기사 모니터링	52.4	43
학회뉴스레터	45.1	37
학회홈페이지	62.2	51
학회푸싱메일(행사 및 제반 안내)	39.0	32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7	3

문 항	응답률(%)	응답수
14. 학회 회원의 내부 의사소통과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다음의 홍보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을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시요.		
자동안내전화	2.4	2
문자메시지	85.4	70
홈페이지	53.7	44
페이스북	8.5	7
뉴스레터	41.5	34
이메일	91.5	75
메신저	4.9	4
트위터	3.7	3
팩스	7.3	6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	1
15. 최근 여러 공공/민간 단체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목적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이러한 SNS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함	24.4	20
필요함	41.5	34
보통	29.3	24
불필요함	2.4	2
매우 불필요함	2.4	2
16. 학회에서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할 아래의 정보 내용들 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 2개만 선택해주시요.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부처정책 및 진료심의기준 변화	91.5	75
학회 및 연구학회 행사 안내	20.7	17
최신정신의학 지식	11.0	9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대처	76.8	63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0.0	0
17. 학회에서 향후 개발해야 할 콘텐츠와 관련하여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시요.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질환 안내 브로슈어 등)	80.5	66
대중강연을 위한 학회 공식 콘텐츠(슬라이드 및 동영상 등)	59.8	49
학교, 직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학회공인 정신건강집단프로그램	50.0	41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콘텐츠(광고영상, 브로슈어 등)	67.1	55
온라인 회원보수교육을 위한 웹 및 동영상 콘텐츠	39.0	32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7	3
18. 선생님께서는 학회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매일	1.2	1
2일~1주일에 한 번	7.4	6
1~2주일에 한 번	8.6	7
2주일~1달에 한 번	30.9	25
1달 이상 간격	44.4	36
전혀 이용하지 않음	7.4	6

문 항	응답률(%)	응답수
19.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공지사항 확인	65.4	53
플라자/익명게시판 등을 통한 타회원들과의 소통 및 교류	19.8	16
법률자문 의뢰 및 확인	12.3	10
구인/구직	1.2	1
행사/학회 일정 확인	48.1	39
학회지 검색 및 투고	27.2	22
자료실 이용	22.2	1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6.2	5
공지사항 확인	65.4	53
20.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스럽다	0.0	0
만족스럽다	16.0	13
보통이다	61.7	50
불만족스럽다	14.8	12
매우 불만족스럽다	6.2	5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	1
21. 선생님께서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시각적 디자인 미흡(색깔, 모양 등)	9.9	8
구조적 디자인 미흡(배너, 게시판 등의 비효율성/비일관성 등)	17.3	14
전문의 회원들을 위한 콘텐츠 부족	80.2	65
일반인들을 위한 콘텐츠 부족	13.6	11
전담 관리자 부재	32.1	26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7.4	6
22. 학회 홈페이지는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선택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가까운 병원, 정신질환 상식 등)	32.1	26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	3.7	3
전문의 회원들의 소통과 교류(게시판, 커뮤니티 기능 등)	75.3	61
전문의 회원들을 위한 신속한 정보 및 자료(공지사항, 학회 일정, 진료지침 등)	90.1	73
전문의 회원들을 위한 웹기반 교육과정(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CME 과정 등)	74.1	60
유관기관(개원의 협회, 연구학회 등) 홈페이지와의 효과적인 연계	24.7	20
23. 모바일 버전에 최적화된 홈페이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함	21.0	17
필요함	42.0	34
보통	21.0	17
불필요함	12.3	10
매우 불필요함	2.5	2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	1